2024-04-24

Today's Chart

미 추가 금리인상 우려 진정 VS 금리정책 탈동조화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그림1. 4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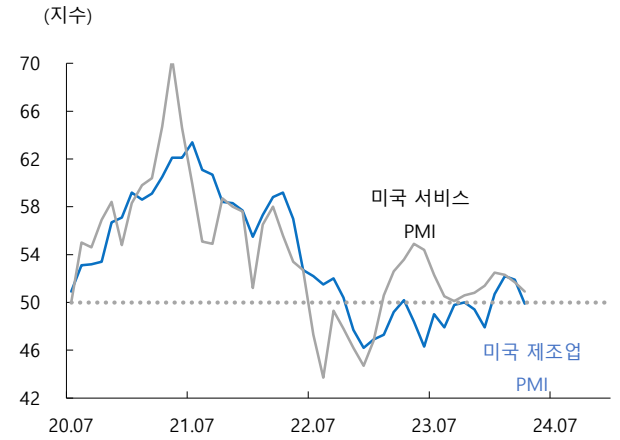


그림2. 독일 PMI지수는 혼조. 서비스 PMI지수 개선세 지속 속에 제조업 PMI 회복은 답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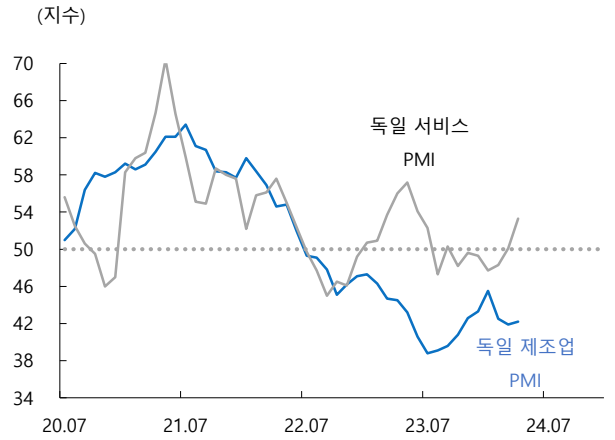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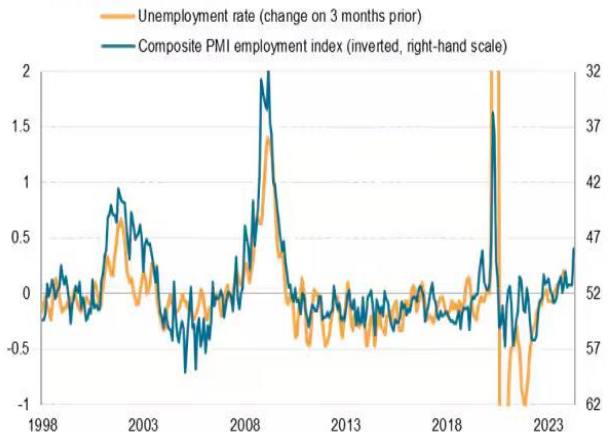


그림3. PMI지수는 미국 경기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4. 2020년래 처음으로 고용지수가 위축국면에 진입



자료: spglobal.com,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4월 미국 PMI 지수 깜짝 둔화 : 최소한 추가 금리인상 우려는 소멸

- 금융시장이 경제지표 둔화, 즉 Bad news에 반갑게 화답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지수 부진이 최소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으로 여겨짐

- 4월 미국 제조업 PMI지수는 49.9로 시장예상치 52는 물론 3월 51.9를 대폭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함. 특히, 제조업 PMI지수가 위축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47.9) 이후 4개월만임. 제조업 PMI지수와 함께 서비스 PMI지수 역시 예상 밖의 부진을 기록함. 4월 서비스 PMI지수는 50.9로 이 역시 지난해 11월(5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또 하나 금융시장이 주목한 지수는 PMI 지수 중 고용지수로 4월 고용지수는 48로 3월에 비해 3.2pt 하락하면서 이 역시 위축국면에 진입함. 고용지수가 위축국면에 진입한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확대와 금리 급등 등으로 4월 PMI 지수가 예상 밖 부진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4월 PMI지수 한 지표만으로 미국 경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2분기들면서 미국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됨.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인하 지연은 피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미 연준이 물가만을 보고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분위기는 진정될 공산이 커짐

■ ECB의 6월 금리인하, 즉 금리정책의 탈동조화 현상도 유효

- 6월 ECB의 금리인하는 탄력을 받을 공산이 높아짐. 미국과 달리 유로존 PMI지수는 다소 혼조 흐름을 보임. 서비스 PMI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제조업 PMI지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기록함.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 4월 서비스 PMI지수는 53.3으로 시장 예상치(50.5)와 3월(50.1) 수준을 대폭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켜 준 반면에 제조업 PMI지수는 42.2로 시장 예상치인 42.7를 하회함. 독일 제조업 PMI지수의 위축현상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 ECB 입장에서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유로 경기 흐름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기 금리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 추세인 상황에서 장기 부진이 지속되는 제조업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도 미 연준과는 다른 정책 행보가 필요함
- 따라서 ECB가 미 연준 바라보기에서 벗어나 금리정책의 탈동조화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